

의생활변화에 따른 세탁문화의 변천

최 해 운* · 박 명 자

한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세탁이란 인간이 의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발전을 거듭해온 오랫동안 친숙한 일상생활 중의 하나이며, 특히 개화기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거의 100여 년에 이르는 기간은 전통사회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급격한 시대적 변화를 거치므로 가정에서의 의생활과 세탁 문화 전반에 불가분한 영향을 미치었다. 따라서 사회변동이 의생활과 세탁문화의 변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20C가 시작한 이래 100년을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역사적인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체계화하여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미래의 바람직한 세탁문화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각 시대의 사회상과 의생활 및 세탁문화와 관련된 자료(세탁용수, 세제, 세탁도구, 세탁방법, 세탁물의 종류 등)의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중앙 종합일간지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이용하였다. 100년 동안 일어난 세탁문화사적 발명과 사건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것을 기준으로, 각 시대별로 구분지어 세탁문화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빨래터세탁시대(1901~1960년)

세탁용수로는 시냇물과 샘물이 쓰였으며, 공동세탁장(23)이 생겼다. 비누를 만들어 쓰거나 잿물, 오줌, 밀감껍질, 칩냉쿨, 쌀뜨물을 이용하는 등 자연세제를 이용하였으며, 표백제로는 달걀껍질, 굴껍질, 레몬즙, 김나간 맥주, 콜로로칼키, 과불산소다를 이용하였고, 유연제로는 식초나 초산을 사용하였다. 세탁도구는 빨래통, 빨래방망이, 빨랫돌, 화덕, 가마솥, 빨래줄, 바지랑대 등 자연세탁도구를 이용하였다. 세탁물의 소재는 주로 천연섬유였으며, 편물(16건), 모자(15건), 양복(13건), 우산(11건), 모기장(8건)의 순서로 세탁물의 세탁방법을 자주 다루었다.

2. 옥내세탁시대(1961~1980년)

전국의 상수도보급률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1970년대에 이르러 집안에서 수돗물세탁이 가능해졌다. 국내 최초의 합성세제('66)와 국산전기세탁기('69), 염소계표백제('75), 섬유유연제('78)가 등장하여 세탁도구와 세제의 발전을 거듭하였다. 합성섬유(2건)의 세탁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었으며, 수질오염(7건)이나 피부염(4건) 등 합성세제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와 인체안전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3. 세탁기세탁시대(1981~1990년)

1980년에 13%이던 세탁기보급률이 64%로 급격히 늘면서 손빨래에서 기기를 이용하는 세탁기세탁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인식과 기성복이 보급되자 '세탁취급법의 표시'(82)가 의무화하고, 세탁사고, 세탁불만에 대한 소비자고발에 관한 신문기사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세탁에 따른 정부의 환경정책(세제의 연성화와 세제의 인산염사용 규제)과 환경시민운동(합성세제 덜 쓰기)이 시작되었다.

4. 친환경세탁시대(1991~2000년)

합성세제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자, 세탁성과 편의성, 친환경성의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세제의 성분, 형태, 용기 등이 변화하였다. 또한 절전절수형, 저소음, 저진동, 무세제, 재활용소재 등의 친환경세탁기도 함께 개발되었다.